

Appendices

Appendix 1: History of HSA-UWC by David S.C. Kim

This is an account of Dr. Kim's experiences in the early years of the Holy Spirit Association for the Unification of World Christianity (HSA-UWC). Here he recalls his early life which prepared him to meet and join the first followers of Reverend Sun Myung Moon, the founding of HSA-UWC in Korea in 1954, his first pioneer mission in England, and the first years of the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This text was published in Korean on December 15, 1986. It is presented here in its original Korean form.

信仰手記第3輯

證言

世界基督教統一神靈協會編
歷史編纂委員會



成和社



金相哲

다윗의 사명받고 해외선교 일선에

- 1915. 11. 서울에서 출생
- 1939. 3. 연희전문학교 영문과 졸업
- 1954. 1. 통일교회에 입교
- 1954. 8. 선교임무를 떠고 영국으로 감
- 1959. 9. 2차로 선교임무를 떠고 미국으로 감
- 1960. 2. 성 웰렌스 통일교회 창립
- 1962. 11. 미국 11개주 대상 40일 순회전도활동 출발(책임자)
- 1964. 9. 시카고 통일교회 창립
- 1965. 5. 오레곤 주립대학 졸업(교육학 석사)
- 1975. 9. 미국 통일신학대학원 원장

다윗의 사명받고 해외선교 일선에

김 상 철

입교전 신앙과 가정배경

나는 1915년 음력 11월 9일 서울에서 2대독자로 태어났다. 집안이 초종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기독교, 할머니와 어머니는 불교와 유교와 관계맺고 있었다. 집안에는 관상가, 드사, 영통인, 불교의 법사 등의 왕래가 빈번했다.

특히 할머니께서는 내가 귀한 손자인만큼 명산대칼을 찾아다니며 나의 부귀공명을 위하여 많은 치성유 드렸다고 한다. 또 종교적인 경심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한방의 보약과 귀한 산삼까지 구하여 나에게 먹였다고 한다. 할머니의 이러한 신앙심과 자애로움은 성장기에 나의 종교의식과 신앙생활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어머니는 17살때 아버지(당시 15세)와 결혼하여, 서울시내 지금의 종로구 교동국립학교 근처에 살았으며, 여기서 나는 태어났다.

어머니께서 나를 임신하셨을 때 꿈을 꾸셨는데, 바다에서 용이 나와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후에 친러 말씀하셨다.

국민학교 시절 나는 부모님과 할머니를 따라 강원도 인제에 가서 수년을 지냈다. 나는 그곳의 아름다운 산과 강들을 친구로 삼아 경서를 기르고, 명상을 좋아하는 나의 성품도 길러워진 것 같다. 강원에서도 서울로 와서는 인현국민학교를 거쳐 휘문고등학교를 나오고, 연희전문학교 영문과에 들어가서 1939년에 4년을 마쳤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조선고무공업협회(군산)의 전북주재관으로

김상철 9

1945년 대방이 될 때까지 근무했다. 이무렵 아내(강의홍)를 만나 1942년 1월 6일 경북 김천(치가) 황금동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1945년 한국해방과 1950년 6·25동란을 그곳 군산에서 맞으면서, 나는 언제나 기독교와 불교 더 나아가 모든 종교의 연합을 회고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주일이면 낮에는 교회에 나가서기도를 하고, 저녁이면 집에서 영봉인이나 불교의 법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곤 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소위 에큐메니칼 운동을 한 셈이었다.

6·25동란과 피난생활에서의 영적체험

1950년 6·25사변 발발시, 나는 중앙청 직속 제무부 국고지출관으로 전북 전주에 있었다. 인민군이 전라북도까지 진주하자 정부기관과 국군이 전주를 떠나 전라남도로 후퇴하게 되었다. 나도 피난민의 신세로 국군을 따라가는데, 남원에서 함양으로 넘어가는 높은 재와 산기슭에서, 인민군과 지리산에서 내려온 빨치산에 의하여 피난민의 남하하는 길이 차단 되어 피난민과 국군이 당황하게 되었다. 이런 혼란 속에 나는 심각히 오랫동안 명상기도를 하였다.

순간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자색옷을 입은 인자한 할아버지 한 분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가려는 그 길로 남하하지 말고 이 산기슭에 있는 청룡사에 머무르라”고 하고는 사라졌다. 나는 환상에 나타났던 할아버지의 말을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청룡사에 머무르게 되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산기슭에 머무르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며, 남하하는 것이 안전한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상식적 판단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일시 도사로 가장하여 승려옷으로 바꾸어 입고 청룡사의 승려의 도움을 받아 그 곳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 곳에서 지내게 3개월여 나는 수양과 명상과, 불교의 심오한 진리에 접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이 시기는 나의 종교적 숙원인 종교연합의 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는 기간이기도 했다. UN 군이 남원 후방에 진주하고, 후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나와 함께 남하하던 피난민과 국군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던가 인민군에게 잡혀 갔다고 했다. 산목에서 영적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 책임을 깨닫고 길이 감사

10 證 言

했다.

시국이 혼란해지자 인민군이 인근 촌락까지 찾아 들어와서 대한민국 관리였던 나를 잡으려고 찾아다녔다. 또 남원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자 본격적으로 기독교 목사와 교인들, 또 사회인사들을 인민재판에 붙여 학살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야말로 매일 매일 생사의 분계선을 넘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때 나는 전적으로 영계의 협조와 청룡사 승려 김법사의 기도와 염불의 덕으로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다.

김법사는 보통승려와는 달랐다. 우선 도를 통한 분이었고, 영계를 붙들 줄 알았으며, 유불선 3교를 통달한 사람이었다. 아침 예불시에는 불교의 맑은 선령들이 김법사에게 나타나서는 “오늘 몇시에 어떤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올 것이니 어디로 가라”는 지시를 할 정도였다. 그러면 나는 그 김법사의 말대로 행동에 옮겨 위기를 면하곤 했던 것이다.

하루는 세사람의 보안서원이 내가 있는 청룡사를 찾아 나를 체포하려 했다. 그때 나는 사찰 구내에서 쫓겨 떨어진 큰 돌벽에 기대어 기도와 묵상을 하고 있었다. 세사람은 내가 있는 곳으로 접근하여 왔다. 그중 한 사람이 내가 서있는 돌벽 가까이까지 왔다. 그가 서있는 위치로 봐서는 나와 사이가 몇미터 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보지 못하였음인지 그대로 지나치려 했다. 그리고는 상관인듯한 이에게 아무도 없다는 보고를 하고는 그냥 돌아가 버렸다. 나는 그가 내 앞에 왔을 때도, 눈을 감고 기도와 염불로 하나님과 부처님의 도움을 바랄 뿐이었다. 생을 완전히 단념하고 체포에 응하여 자수하려고 결심하는 심각한 순간이었다. 생과 사는 종이 한장 차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이 사건에는 완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라 생각된다. 영계에 서 보안서원의 눈을 가리었거나, 돌벽에 기대 서 있는 내가 암석으로 보였는지도 모른다. 만일 내가 한마디라도 말했더라면 살아날 수 없었을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리하여 영계의 협조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무사히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얼마를 지나자 UN군의 인천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호남지방에도 미군 경찰기가 빈번히 나타났다. 그 곳이 호남지방에서 군대가 진주하는 요지로 돼 있어서 인민군과 인민위원회는 산북 청룡사에 피신하고

김상길 II

있는 내가 무전으로 미군정찰기와 연락을 한다고 생각하고, 또 나를 잡으려고 총동원해 나섰다. 소식은 곧 영계를 통하여 김법사에게 알려졌다. 김법사와 나는 위기를 면하기 위해 그 곳을 피하기로 했다.

소식을 받은 다음 날 아침, 마침 이리에서 청룡사로 피신해온 어머니와 함께 3명이서 전주시를 향해 북상하기로 했다. 지방 유지인 김법사의 도움으로 남원에서 전북도위원회의 국고재정 사무인계차라는 명목으로 임시여행증을 발급받았다. 이후 15일간은 길 위에서 지냈다. 밤낮없이 미군기의 폭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생길과 극도를 가릴 것 없이 걸었다. 전주에 도착해서는 부모님이 살고 계시던 이리로 가서 당분간 피신하기로 했다. 그때 아버지와 아내 및 가족들은 군산과 이리 중간지점인 지경(地境) 근처에서 피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자유로 왕래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되었다. 이리에 도착하니 이미 이리인민위원회에서 나를 잡으려고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었다. 어머니만 집에 계시게 하고 나는 다시 남원과 이리를 오고 가면서, 또 가끔 청룡사도 들리면서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때 나는 산속에 자칭 도사판자가 있어서, 그가 나를 인민위원회에 밀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원에서 인민군이 빠져나갈 때 사사로운 일로 인민군에게 피살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신앙의 길을 가야하고 도(道)를 찾아야 한다는 나의 결심은 변함이 없었다. 하루는 산으로 다니며 수양을 한다는 한 사람이 청룡사에 나타나서는 “도사로 가장해가지고, 그 날 그 날 어려운 중에도 수양과 도를 닦고 있는 것을 알았소. 앞으로 큰일을 할 분이 되어 하늘이 돕고 있소이다. 염려할 것 없소이다”고 말하면서 시(詩)를 한수 적어주며, 아울러 나의 호를 소우당(昭宇堂)으로 지어 주었다. 시의 내용은 ‘昭昭 靈靈, 瀟瀟 宇宙’였다. 아마도 ‘나의 영이 밝고 밝아서, 우주에 가득찬다’는 뜻일 것이다. 이 휘호는 지금 내가 갖고 있지 못하다. 수복후 재무부 장관에게 보낸 시말서에 원본을 그대로 첨부해 보냈기 때문이다. 수차 원본을 구해 사본이라도 만듦과도 했으나 여의치 못해 유감스럽다.

산속에서 3개월 동안 나는 오로지 세가지의 목표를 세워놓고 매일

12 證 言

정성과 기도를 드렸다. 특히 불교계의 영계 협조를 많이 받고 있었다. 그 3가지 목표는 이와 같다.

① 이 산에서 무사히 살아나고, 인민군에게 잡히지 않기를.

② 지경에서 피신중인 전가족이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③ 군산에 있는 집이 무사히 보존되어, 수복될 때까지 파괴되지 않도록.

만일 위 ①②③이 이루어지면, ④ 중생과 인류를 위하여 나머지 전 생애를 바쳐 헌신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위 세가지 목표는 이루어졌다. 그리고 군산의 집도 보호되어, 그 자리에 전북 군산 통일교회가 설립되었다. 최초의 전도사로 김육봉씨가 파견되어 아내와 함께 개척 전도를 하였다. 그후 이상현선생이 내과병원을 경영하면서 머물기도 했다. 또한 지금은 자신이 선생님을 모시고 하늘의 뜻을 가고 있으니, 내가 세운 배까지 조건이 모두 이루어진 셈이다. 하늘은 미리 나를 전쟁의 와중에서 훈련시키신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군산에 있는 우리집에 얽힌 이야기 하나가 있다. 나는 우리집을 월명장(月明莊)이라고 명명했다. 일제시대 군산 시내 한 일본인 고판의 주택이었다. 해방후에 적산가옥으로 되어 군정청에서 불하받은 것이었는데, 정원이 있는 아름다운 양옥이었다. 전쟁중 나의 소원중 가운데 하나가 이 집이 무사히 보존되는 것이었다.

인민군이 우리집을 차지하고 있을 때였다. 하루는 군산시를 미군이 폭격을 하는데 다칠 우리집에는 전기불이 켜져 있었다. 집은 월명산 아래에 있었는데 바다에서 저공으로 날아와 산을 넘어 바로 집이 보여 폭격하면 실수없이 적중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날 폭격을 당했는데 폭탄이 적중하지 않고 빛나가 근처 밭에 떨어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를 나중 알게되었지만, 영계에서 특히 불교계의 영인들이 우리집을 보호했다는 것이다. 전영인들이 동원이 되어 그 폭탄을 받아서 던져버림으로써, 적중해야 할 폭탄을 빛나가게 했다는 것이다. 영계와 육계가 협동해서 좋은 결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이 사건을 통해 나는 영계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체험했다. 우리가 얼마나 정성과 기도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영계의 협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이런 영적현상과 영계 협조로 산복에 있으면서, 서울이 수복될 것과 인민군이 물러갈 것을 미리 알고, 위

기들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군산의 우리집은 주소가 군산시 월명동 123번지로 되어있어, 이러한 재미있는 사실과 함께 우리가족 모두에게 애착이 가는 집이다.

협회창립에 참여하는 영광

수복후 환도하여 1954년 1월 하순에, 연희전문 후배인 이창환씨, 그리고 선생님의 일본유학 동창인 엄덕문씨와 연결이 되었다. 나는 여건이 정부 공무원으로 있을 때였다. 대구에서 육세현 할머니께 내린 계시와 하늘의 음성을 접하고서 아무 의심없이 연결이 되었다. 더구나 6·25동란 중 체험한 영적역사는 더욱 쉽게 뜻과 연결되게 했었는지 모른다. 유효원, 이창환씨와 함께 서울에서 선생님을 중시하고 열심히 영문 견도지도 만들고 원리말씀 번역에 진력했었다.

1954년 5월 1일경 선생님께서 때가 되었음인지 우리들을 모아 놓고 하늘이 내리신 3가지 단체 이름을 써주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해야 된다고 하셨다. 그중 제일 쉽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한자 11개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世界基督教統一神靈協會)'였고, 다른 2개는 우리들이 이해조차 못할 어렵고도 굉장한 이름들이었다. 5월 3일에 한문과 영문으로 간판을 써서 성동구 북학동, 소위 '세대문' 집에 걸었지만 정식 협회 창립일은 1954년 5월 1일이다.

협회명칭을 번역함에 있어서 '神靈'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를 두고, 'spiritual'이나, 'holy spirit' 이나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짧은 사려 끝에 'holy spirit'으로 정했다. 이는 3위일체 기성교회 교리의 성신과 혼돈이 되기 쉬웠으나, 뜻은 'spiritual association'과 같은 것으로 알고, 그렇게 번역을 했다. 그리고 간판 밑에는 서울교회(Secul Church)라고 작은 간판을 붙였다. '세대문' 집에서 정식으로 통일교회가 발족되고, 이곳이 우리 통일운동의 뿌리가 된 것이다. 그 때는 물론 부산, 대구에 식구가 있었으나, 서울에 있었던 6명(선생님, 유효원, 김상철, 이창환, 유효민, 박정화)을 중심으로 발족시켰다. 또 창립시 그 자리에 참석은 안했으나 대구에서 올라온 강현실전도사가 협회 창립 당시 서울에 왔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특히 나의 천적 사명에 대해서 육세현할머니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리신 말씀을 지금까지 늘 마음속에 간직해오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

14 語 彙

리하다.

1954년 2월 대구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하늘은 옥세현 할머니를 통해서 “상철아! 30년간 너를 훈련시키고 신앙과 종교적 체험을 넓히도록 한 것은 이 한 곳에 인도하기 위함이었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다윗이다. 싸워서 승리해야 하며, 너는 해외 개척 선교사로 일해야 할 사명이다”라는 말씀을 내려 주셨다. 이러한 뜻의 말씀을 받고 대구에서 새벽에 비몽사몽간 선생님을 뵈고 손을 잡았을 때는 전기가 통하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이 영적 체험 후부터 선생님이 누구시며, 나의 사명이 무엇이며, 앞으로 해외로 진출하여 하늘의 뜻전과를 해야 할 의무감은 그 무엇일지 느꼈다. 개척자로서 세상과 싸워,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승리하듯 사탄세계에서 기필코 다윗과 같은 승리자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다지게 되었다.

대구에서 영적 경험 후 3개월만에 선생님을 처음 직접 뵈을 때 환상에서 보았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유효원씨로부터 원리말씀을 처음 들으며 아무런 거부반응 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렇게 1954년에 뜻을 정한 이후 오늘날까지 많은 고난의 길이 있기는 했지만, 하늘의 보호하심 가운데 뜻길을 가고 있음에 언제나 감사하고 있다.

선교임무 띠고 영국으로 건너감

1954년 8월, 협회창립 후 우리 통일교회의 식구중 최초로 영국에 건너가게 되었다. 그 때 대한민국 정부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오던 UN의 후진국가 개발원조의 프로그램이 있어서 정부대표로 3인이 가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사람으로 내가 뽑히게 되었던 것이다. 섭리적으로 보면, 해외에 통일원리를 선포하기 위해 이러한 일들을 하늘이 준비시키신 것이고, 그리하여 내가 첫 선교의 임무를 띠고 외국에 나가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일제하 연회전문 재학시절 나는 미국에서 온 선교사 두분 (Cable 와 Clark)의 영향을 받았고, 언제나 그분들을 추앙하고, 나 자신도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 염원대로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서양을 향해서, 또 새 시대의 개척선교사로 하늘의 명을 받은 것을 무한한 은사로 생각하면서, 영국으로 떠나게 되었다. 마음은 큰 희망에 부풀었고, 결심과 결의를 더욱 다지게 되었다. 1954년 8월에 한국

김상철 15

을 떠나서 1955년까지 2년동안 웨일스대학교 스윈시대학에서 사회정책과 후생에 대한 연구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틈나는대로 원리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기성교회들을 방문했다.

내가 영국으로 떠날 때는 39세였고, 출발시 선생님께서 선교일지장에 손수 말씀을 적어 주시고 격려하여 주셨다. 이 말씀을 갖고 나는 의기충천, 영국으로 떠났던 것이다.

1954년 8월 15일자로 선생님께서 주신 말씀(성구까지 기록)과 선교일지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일지장 표지에 친히 ‘향후록(鄉愾錄)’이라고 쓰셨다.

“상철씨께 주는 말씀,

1. 롬 8 : 39
2. 렘 6 : 24
3. 시 23편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라.

주를 사랑하여라.

그러면 승리하는 은혜자가 되리로다.

여기에 하늘이 협동하리라.

뜻 위하여 말씀하는 선생님이 부탁.

1954. 8. 15. MSM”

이렇게 선생님께서 친히 주신 일지장과 거룩한 말씀은 나와 나의 가족만이 가질 수 있는 ‘하늘의 보물’은 아닐 것이다. 이는 세계에 널려져 있는 통일교회 개척선교사들과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수고하는 우리의 모든 형제자매에게 내리신 지시요, 교훈이요, 금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UN 연구생으로서 일정표가 꽉 짜여져 있었지만, 시간이 나는대로 개인 접촉은 물론 기성교회로 다니면서 설교를 맡기도 했다. 또 영국의 후생시설과 정부의 기관들을 시찰하게 되어, 영국각지로 다닐 기회가 있었고, 가는 곳마다 전도할 사람을 찾기에 노력하였다. 이때 한국에서는 이대사건으로 정부와 기성교회가 통일교회를 박해하고 언

16 證 言

문기관의 무책임한 보도로 큰 시련을 겪고 있었고, 급기야는 1955년 7월 4일, 선생님과 간부들이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나는 영적으로 한국에서 통일교회가 수난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늘에서는 매때로 위로와 격려를 주시면서 영려받고 나의 외국선교에 전력을 다할 것을 계시와 환상으로 보여주셨다. 이리 하여 외국 기독교 단체의 협조와 도움을 얻어 한국에서의 박해를 해결해하려고 이 단체 지 단체를 방문하였다.

1955년 8월에 '국제사도교회 연차대회'가 체일스에서 열리게 되었는데, 총회의장과 미리 교신 연락하여, 장한 인사말씀과 한국에서 새로 문선명선생님 중심으로 전개되는 청년기독교운동에 대해서 소개하겠다고 간절히 호소하여 10분간의 시간을 허락받았다.

그날이 1955년 8월 3일, 중요한 날이었다. 25분 동안 말씀을 하게 되었다. 3천여명의 사도교회의 지도자, 세계선교부장, 평신도, 또 단상에 60여명의 대표목사가 앉아있는 곳에서 말씀을 하게되었다. 단상에 올라간 나는, "문선명선생님을 중시한 운동은 새로운 종교운동으로 사도교회같이 하늘의 뜻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다. 예언과 새로운 성경해석, 부흥회에서는 성령의 역사 등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 선교단과 기성교회는 정부와 교단과 언론기관을 총동원하여 박해를 하고 있다. 세계에 널려진 양심있는 성도들은 곧 조사단을 보내고, 사도교회의 선교부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이를 위해 지금 내가 영국에 온 것이다"라고 열변을 트했더니, 의외로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이 일로 해서 이사회와 각국 대표들이 감격해서, 1956년에 세계사도교회 극동선교본부에 있는 호주에서 대표로 여호수아 맥케이브(Joshua McCabe)목사를 한국에 보내게 되어 6월에 와서 80일동안 머물면서 원리말씀을 배우고, 집회에 참석하고, 모든 것을 관찰하고 조사하였다.

그 때 맥케이브목사는 정석천 장로님백(당시 후암시장 쪽 등자동소재)에서 유하였는데, 우리로서는 극진한 대우를 해주었다. 변소시설이나 방을 다소 서양사람에게 맞게 꾸미느라고 하긴 했으나 불편한 점이 많은 환경이었다. 이 때는 이미 1955년 10월 4일에 선생님께서 무려로 석방되시어 교회들 재경비하는 중이었으나, 외국에서 온 손님은 우리의 큰 희망이며 기대였던 것이다.

김상철 17

나는 그 때 의무부에 근무하게 되었다. 김영운씨는 이대를 사임하고 영문원리를 쓰는 중이었고, 최원복선생도 역시 이대에서 사임하고 전력으로 교회일을 돕는 중이었다. 그리하여 맥케이브목사에게 원리를 가르치고 집대하는 일을 세 사람이 공동으로 맡았다.

사도교단의 대표로 온 맥케이브목사는 정통신앙의 신봉자였기 때문에 우리 원리를 바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였다. 그러나 6월의 흑서에도 80일간 참고 꾸준히 연구를 했다. 때로는 선생님의 설교말씀과 기도중에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다. 또 스스로 설교말씀도 하고 방언 비슷한 역사를 하기도 하면서 원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렇지만 신령역사면에서는 그리 관심을 갖지 않는듯했다. (당시의 이야기가 이미 미국 통일신학대학원 월보인 Corner Stone 1984년 5월호와 Today's World 1985년 1월호, Unification News 1984년 12월호에 소개됨)

그가 말은 아니 하였으나 재림론에서 예수 재림이 인간의 육신을 쓰고 이루어지고, 한국으로 오신다는데 대해서는 자기의 신앙관에 비추어볼 때 무한히 상충되어 고민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영적 느낌과 신령한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리 문제되지 않는 것같았다. 무사히 80일간의 수련을 받으면서, 기독교역사 2천년을 한테 묶어서 말씀을 듣고 간 셈이었다. 그야말로 누구보다도 처음으로 원리말씀을 접한 외국인이었고 또 깊이 공부했던 분이였다. 김영운씨가 가르치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였다.

그분은 김영운씨의 영문원리를 공부하면서 영문번역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영감으로 통일원리를 영문으로 Divine Principle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까지 한 것을 보면, 원리를 잘 이해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 등, 자기가 믿고 따르는 것은 전연 별개임을 보게되었다. 남의 생활 철학이나 신앙을 잘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믿고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맥케이브목사의 경우가 바로 이러한 케이스였다고 나는 회고한다.

그는 이미, 영계에 가 있고 영계에 가보고 원리가 진리이며 재림 예수가 바로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겠지만, 그의 사도교회는 지금도 현존하면서 뜻과는 관계없는 단체로 떨어져버린 것이다. 마치 2천년전에 예수님이 유대교와 유대인에게 메시아로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18 附 錄

하고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박은 것과 같았다. 이 20세기의 대표 기독교 단체와 우리와 연결되어 '실체주님'을 눈으로 보고도, 또 말씀을 듣고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였으나, 바로 알아 모실 기회를 놓치어버린 격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가 한국에 있는 동안 김영운씨와 협력하여 영문판 원리책이 처음으로 한국어판 원리책보다 먼저 나왔고(1956년), 700권을 인쇄하여 세계기독교단체와 유명한 학자들에게 배포하였다. 또 10권을 맥케이브룩사가 친히 갖고 가서 호주와 사도교회 본부의 연구자료로 살게 되었다.

맥케이브룩사가 약속대로 80일만에 돌아간 후, 그는 사도교회 이사회에 우리교회와 우리의 건의문을 제출했다. 건의내용은 사도교회선교부를 한국에 설치하는 것이었다. 동건의안은 사실상 좌절되어 버렸다. 사도교회 이사회에서 나온 최종결의안은, 교리의 상반됨을 들고, 우리 단체가 저들의 교리를 받아들인다면 선교부를 설치하겠다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외국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기독교 단체를 얻는 제 1차 목적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선생님께서는 외국선교의 제 2차 단계로서 1958년에 최봉춘씨를 일본에 밀항시켜 개척 선교사로 보내시고, 이어 1959년 1월에는 김영운씨를 미국에 개척 선교사로 보내시었다. 또 1959년 같은 해 9월에 나를 2차로 미국선교사로 보내주셨다. 이리하여 일본과, 서구사회의 대표국인 미국에 원리말씀이 상륙된 것이다.

2차로 해외선교사로 도미

1959년 9월 18일, 침례교신학교 신학생의 자격으로 미국으로 건너갔다. 이후 미국 서부 7개주를 담당하여 1972년까지 갖은 노력을 다하였다. 7개주는 오레곤, 워싱턴, 아이다호, 와이오밍, 일리노이즈, 유타, 캘리포니아주였다.

그런데 1962년 신학교 졸업을 2주일 앞두고 성경연구회와 원리연구회에서 원리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신분이 선교사임이 알려지게 되어 학교로부터 퇴학처분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더우기 이민국으로부터 강제송환을 당해야 할 처지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하늘의 도움

김상철 19

으로 자진희학하는 것으로 하여 이 대학 저 대학을 옮겨 다니면서 강제 송환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했다. 이 어려운 고비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미국에서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지금에 와서는 그 고생이 교회청년들의 신앙을 지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1965년에는 오레곤 주립대학에서 교육학석사를 얻었고, 1967년 연방정부의 청년지도계획의 일환으로 설립된 'Job Corps Training Center'의 카운셀러로 취직을 하게 되어 1970년까지 근무했다. 그 후 미국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영주권을 얻어서 전가족을 이민시킬 수가 있었다. 이민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다.

김영문씨와 박보희씨는 동부지역을 맡고, 서부지역은 나와 최봉춘씨가 맡아서 1972년 선생님이 오실 때까지 미국 선교에 전력을 쏟았다. 선생님께서 미국으로 건너오신 후로는 4명의 선교사의 일을 할하시교 직접 지도하시어, 1959년부터 1971년까지의 선교사의 개척시대는 막이 내릴 셈이 되었다. 선생님이 새로운 방법과 지침으로 미국 선교의 재반일을 이끌어 나가시게 된 것이다.

성 헬렌스통일교회 헌당

다시 1960년대로 돌아가서 몇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959년 9월 18일 미국으로 건너와서 눈물과 피어린 노력으로 이듬해 1960년 2월 2일(음력 1월 6일) 상오 6시(미국시간 2월 1일 하오 3시)에 나의 미국인 3위기대인 존 슈미드리씨(54)와 피어슨씨(30)와 함께 성명서를 채택하고 아울러 교회헌당식을 가졌다.

이름은 '성 헬렌스통일교회'라 붙였다. 교회는 총면적 6에이커(약 7,344평)의 대지속에 10여동의 건물을 포함하고 있었다. 헌당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3사람이 3일간의 성별된 생활을 통하여 특별준비기도와 회개의 기간을 가졌었다. 이후 이곳에서 '성헬렌스성경연구회'를 조직하여 말씀의 무장과 그 전파에 3사람이 힘을 합쳐 노력했다.

헌당식에서 선서된 성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하신 가운데 '성 헬렌스통일교회'와 '성 헬렌스 성경연구회' 창설에 관하여 1960년 2월 1일 뜻깊은 역사

20 註 釋

적인 날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말세가 가까워옴에 따라 우리 기독교도들은 더욱 더 열심히 기도하여야 할 것이며 성도간의 친교활동이 요청된다.

(2) 성서에는 심오한 뜻이 있음에 비추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님이 태초에 새워놓으신 원리를 발견키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탐구가 요청된다.

(3) 상기 2항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초교파적으로 행동하여야 하며 친적인 책임을 완수키 위하여 3위기대의 원칙으로 서르 일한다.

1960년 2월 1일

한스 존 슈미드리, 버논 피어슨, 김상철”

두차례의 심령대부흥회

1961년 12월 14일부터 1962년 1월 6일사이에 ‘성 헬렌스통일교회’와 ‘성 헬렌스성경연구회’ 및 포틀랜드통일교회 공동 주최로 두차례의 심령대부흥회를 개최했다.

제 1 차 부흥회는 1961년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오레곤주 성 헬렌스 남방 1마일 지점에 있는 ‘맥널티 호텔’ 강의실에서 매일 밤에만 이용하여 하오 7시에 개최했다. 부흥회에서 전체적인 모임의 주관과 성경연구 시간은 내가 직접 담당하였고, 원리강의는 피어슨씨와 존슨씨, 드 퀴렌더사가 맡았다.

동부흥회의 주제는 ‘새시대를 위한 새소식(New Message for the New Age)’ 으로서 초교파적으로 개최되었는데 사회의 주목을 끌어 많은 청강자들이 나왔다. 특히 Sentinel Mist 지에 크게 그 기사가 보도되었고, The Oregonian 지에 광고론이 실리기도 했다.

그 제 2 차 부흥회는 래플 바꾸어 1962년 1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포틀랜드 통일교회 주최로 매일밤 7시 YMCA 예배당에서 제 1 차 부흥회 때와 같은 주제와 제목으로 원리강의를 실시했었다. 강사는 제 1 차 부흥회 때의 나폴 포함 세사람 외에 포틀랜드 통일교회의 스타미르씨가 가담하였다. 이번 부흥회에서도 Sentinel Mist 지와 The Oregonian 지에 부흥회 예고기사가 연 4일간 크게 나왔다. 2차례의 심령대부흥회를 통하여, 나는 이렇듯 벽찬 말씀전파의 행사로 달미알아 계속하여 미래복 전체와 나아가 전세계에 널린 인류에게 복음의 말씀

김 상 권 21

으로 전파되기를 기원했다.

씨아몰에도 교회헌당

1962년 11월 15일 위싱턴주 씨아몰에 교회가 설립되어 ‘씨아몰통일교회’라 명명, 그 헌당식을 거행하였다. 동년 1월 나의 주도 밑에 포틀랜드교회의 식구들이 부흥회를 열었다. 그때 말씀에 집한 한사람인 힐쓰부인(Chrystine Hilts)을 중심으로 교회가 설립되게 되었다. 부인은 루터교회의 중견신자로 사회적으로도 지도층에 있는 저명인사였다. 처음부터 끈기있게 말씀 연구에 임하여 주었고, 마침내 통일교회에의 귀의를 보기에 이르자, 동료 찬들러(Annamae Chandler)부인과 물렛(Elizabeth Mullet) 부인도 함께 교회에 들어왔다. 이들은 원리강사로서 훈련을 받았고, 더욱 많은 식구들을 전도하여, 그들의 여생을 하늘에 바치는 동시에 성전으로 쓰일 건물과 기타 재산을 바치기로 맹세하는 의식을 결한 헌당식을 올리게 된 것이다.

3차에 걸쳐 40일간 연속적 전도 순회

1962년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차에 걸쳐 포틀랜드에서 시카고에 이르는 11개주를 대상으로 40일간의 순회 전도활동을 벌였다.

제 1차는 아이다호주, 제 2차는 몬타나주를 중심한 인접주와 그 주요도시를, 제 3차는 멀리 일리노이주의 시카고시를 연하는 그 연변각주와 주요도시들을 두루 찾아 말씀을 전하였다.

이 순회전도에는 나의 지도 아래 몇명의 식구들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됐다. 순회방법은 자동차와 통신시설을 최대한 이용하였다. 미국 대륙의 3분의 2 이상을 횡단하는 장거리 여행으로 그 경비만도 상당히 소요되는 것이었으나, 새로운 주와 도시를 방문하고 채류할 때마다 본부인 포틀랜드교회에 전화콜 걸어 지도와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

3차례의 전도여행중 중심 목적지인 시카고시는 인구가 600만이나 되는 대도시로 동방종교의 중심지라고 일컬을만큼 신앙열도가 왕성한 곳이었다. 곧 바하이교, 스웨덴보르그재단과 힌두교와 이슬람교 등이 있고 그밖에도 수많은 강력한 영통집단이 주야로 모여서 신앙의 열을

부대되고 있었다.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영동인들의 증언을 접하였는데, 시카고에서 있는 몇가지 사실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당신들의 이번 전도사명은 그 의의가 크고 토대를 닦는 일이 중요하다. 머지않아 이로 인하여 미국에 큰 정신적 개혁을 가져올 것이다.

② 세시대의 의인이 동방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것은 미리부터 받고서 다만 마음에 다 간직해두었었다는 것이다).

③ 김선교사가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있는데 머지않아 함께 일하게 될 것이다.

시카고에도 교회창립

1964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예년의 방식대로 장거리 순회전도의 기간이었다. 이 순회전도는 한국에서의 하계전도 규례에 따른 것이며 매년 큰 성과를 거두어 온 전도활동이었다.

전도반은 모두 3개 반으로 편성하였고 선교본부는 오래근주 포플랜드교회로 하였다. 7월 17일부터 각반은 미국 동부 일대를 세지역으로 나누어서 전도활동을 벌였는데, 9월 1일 밀티노이주 시카고에 모두 모여서 시카고통일교회의 창립식을 겸한 교회 헌당식을 가졌다.

한편 이번 하계 순회전도 기간중 워싱턴주 씨아플 통일교회에서는 연어원리강의 전편이 완성되어 이날을 기념하여 이를 선생님께 봉정하는 식을 갖기도 했다. 또 펠취부인은 시카고에 이르는 장거리 전도 여행에서 남자나 혹은 젊은이를 무색케할 정도의 경력을 발휘하여 손수 절차를 운전해냈다.

이렇듯 시카고에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나선 대원들은 근 3천마일의 장거리를 주파하기까지 그 도중에 있는 도시마다 혹은 기회가 닿는대로 전도를 하였다. 유숙도 여관이나 모텔에 들지않고 공지에다 천막을 치거나 아니면 그냥 차내에서 혹은 풀밭에서 또는 공원같은 데서 밤을 지내기도 했다.

이 장거리 전도여행중 영적인 협조도 많이 받았다. 그중 한가지를 들어보면, 다음날 아침의 노정이 시작되기 전에 차들에 대한 상세한 고장에서가 전날밤에 내려지는 것이다. 예시에 따라 수신공장에 가서 보이면 꼭 예시 그대로여서 수신을 해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김상철 23

수 있게 된 것이다. 좀더 상세한 경우에는 하늘이 사고 위치 및 차의 운행속도까지 지시해주셔서 아무 탈없이 전도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직·간접으로 참여한 개척

☐ 국제기동부흥단 (International One World Crusade, Inc.) (IOWC)
선생님의 희망의 날(Day of Hope) 캠페인을 1972년에 친히 본격적으로 전개하실 때였다. IOWC 기동대를 조직 동원하셨는데, 8대도시, 21개도시, 32개도시에 선봉을 일으킬실 때, 대회마다 선발대 조직과 TV와 라디오 인터뷰 등 모든 것을 내가 직접 지휘 감독했다. 1975년에는 IOWC가 정부에 등록되고, 면세신청 중이나 등록은 뉴욕에서 했기 때문에 선생님의 법정싸움과 관련되어 허가는 나지 않았지만 합법단체로 운영되어 왔다. 계속 내가 회장 일을 맡아왔고, 그간 시행해온 우선 큰사업으로 'Day of Hop' 1, 2, 3권이 IOWC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또 매주마다 라디오 방송을 하고 초교과 운동과 독서, 신학자물 대상으로 공청회도 작으나마 계획 실행해왔다. 초교과운동에 있어서는 존슨(Dr. Kurt Johnson) 식구와 브린(Shawn Bryne)선부와 합동하여 법적 수속과 등록을 완료했다.

☐ NCCSA (National Council of Church for Social Action, Inc.)

이는 기성교회 기독교협의회(NCC)에 비견하는 것으로 1976년에 성공적으로 정부에 등록하고 면세단체로 공인되었다.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운영하고 나는 이사로서만 참여하고 있다. 전국목사공청회도 계획 실행되고 있고, 효과도 크다.

☐ 국제구호 친선재단 (International Relief Friendships Foundation, Inc.)

선생님께서 1974년부터 우리의 통일운동에 사회사업과 구호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존슨(Dr Kurt Johnson) 식구와 스탠다드(Bob Standard) 식구(변호사)와 나를 세우셔서 비밀리에 뉴욕주 이외의 주에 등록을 하게 하셨다. 이후 발전하여 1979년에 와서 완전히 정부의 공인된 단체로서 면세의 특권을 허가받고, 현재는 우리의 외국 선교부와 연결이 되어 세계적인 활동으로까지 발전되었다. 현재 발기이사로 있으며, 필요시에 상담역을 맡고 있다. 선생님께서 크게

24 附 錄

관심을 갖고 계시며, 세계무대에도 발전시키겠다고 말씀하셨다.

㉑ 세계종교의회 (Assembly of the World's Religion, Inc.)

통일신학교의 적극적인 원조와 지지로서 발족하여 지금은 뉴욕주를 제외하고 등록되어 면세의 혜택을 받고 있다. 전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각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회의와 세미나를 열고, 종교연합을 위해 상호협조하는 단체이다. 매년 과학자대회 때에 연차대회를 개최하였다.

㉒ 통일신학대학원.

1975년 9월 20일에 창설되었다. 대학원(graduate school)도 인가 신청을 했으나 취소당했고, 1975년부터 내가 원장을 맡고 있다. 이 신학교는 뜻발전의 '산실'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많은 단체들과 연결되어 탄생되었고, 여러 단체들과 더불어 많은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사업들중 몇가지를 들어보면 New ERA 운동, 세계종교 청년세미나, 하나님회의, 문선명연구소 등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너무나 방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IRF(국제종계단)를 설립하고 실무적인 일은 이곳에서 해나가고 있다. 비록 많은 단체가 설립되고 있지만 신학교의 교수와 학생들, 졸업생들은 직간접으로 각단체가 펼치는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

Appendix 2: True Mother's Victory of True Love by Eui Hong Kang Kim

Dr. Kim's wife, Eui Hong Kang Kim, has spent many years in devoted attendance to Reverend Sun Myung Moon's wife, Dr. Hak Ja Han Moon. In this testimony she shares deeply about the heart of a true mother in her account of some of True Mother's life experiences.

This text was published in Korean, January 15, 2003. It is presented here in its original Korean form.

한학자총서 화갑기념문집 제 2 권

말씀과 증언 및 언론 보도

참사량의 승리자 참여머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대한민국에 하늘의 참딸이 태어났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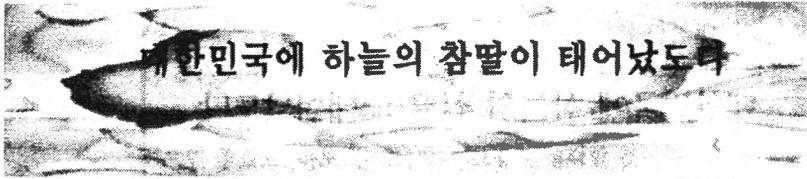
강의홍(姜義弘)



1918. 9. 26(음8.16) 평안남도 평양에서 출생한 강의홍 여사는 일제 하 독립운동을 하고 해방 이후 제헌국회의원을 지낸 강익형 씨의 자녀.

1954년 남편 김상철 선교사와 함께 전북 군산에서 입교하여 36가정으로 축복을 받았음.

1959년부터 미국 선교사로서 오레곤, 유타, 샌프란시스코 교회를 개척한 김상철 통일신학대학원(UTS) 전총장을 따라 1967년 미국에 이주함.



강의흥

2003년 음력 1월 6일은 천주 참부모님의 성탄 경축일이다. 더욱이 참어머님의 육순 회갑을 맞이하는 경축의 날이다. 참어머님의 육순 경축은 6천년 원한의 역사를 총청산하신 천주적인 대경축이며 승리를 찬양해야 할 대잔치이다. 부족한 나는 그 날을 맞기 위해 예비하는 마음에서 모래알 같은 정성을 모으고 있다.

2002년 11월 12일 아침 지생련 여사로부터 팩스가 왔다. 참부모님의 성탄 축하와 참어머님 육순 축하 기념집을 발간하여 역사에 귀히 남기려고 하니 참어머님에 대한 증언을 써 달라는 공문이었다. 나에게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이 팩스를 보내신 지생련 여사는 나와 중적 삼위기대이다. 세월이 흘러 36가정 자매들도 다 흩어져 살게 되어 서로 만나기가 어렵다. 그러나 지생련 여사와는 미국에서도 가까운 거리에서 살고 있다.

엄청난 소식의 팩스를 받고 며칠간 주저하였다. 그러나 참어머님

의 육순을 맞이하며, 또 이 날을 역사에 길이 남겨 참어머님의 존엄 하심과 참사랑의 어머님이심을 증거하는 글을 쓰겠다는 용기에서 직접 들고 보고 느낀 바를 사실적 증거로 쓰려고 결심했다. (이 증언에서 혹시 천도에 어긋난 표현이나 불경적 어구가 있다면 양해와 용서를 구한다.)

하늘의 계시

나는 1955년 후반기부터 1962년까지 노량진에서 오 집사님(故 오영춘), 대모님과 함께 셋집에서 한 울타리에서 살았다. 이 기간 동안 대모님과 오 집사님으로부터 이북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사연을 많이 들었다. 대모님과 오 집사님 두 분은 이북에서 재림주님을 맞이하려는 열렬한 신앙집단에서 혈연 이상의 자매로 지내셨다. 이북 공산주의 학정이 날로 극악해지면서 이 신앙집단에도 예외 없이 핍박이 가해졌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오직 재림주님을 맞이하려는 신앙은 불같이 타올랐다. 이때 대모님께서 회임(懷妊)을 하셨다.

회임하신 대모님과 또 식구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계시가 내렸다. 오직 소망이 재림주님을 만나는 것인데, 하늘의 계시가 '순애야, 네 복중 아기는 재림주님이시다. 귀히 기억하여라' 하는 거였다. 이뿐인가? 여러 신도들에게도 '순애 복중 아기는 재림주님이시다. 귀히 기억하고 정성을 다하여라'는 계시가 있었다. 이러한 엄청난 놀라운 계시를 받고 감사와 기쁨과 소망에서 재림주님을 당장 만난 듯한 즐거운 잔치 분위기였다. 기다리는 재림주님의 탄생일을 손꼽아 기다렸다. 출산 예정일에 이르러 대모님께서 재림주님을 분만하시

200 Ⅱ 참사랑의 승리자 참어머님

니 온 주위가 소망했던 것이 현실로 다가왔다. 그 장면이 어떠했을까?

참어머님 탄신일을 맞이해 회상해보자. 이제 아기는 세상에 오심을 천지에 선포하는 소리와 함께 탄생했다. 그런데 당시 대모님과 모든 신도들은 기뻐함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의아심에 빠졌다. 재림주님이라 하셨는데 남아가 아니라 여아가 탄생한 것이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 귀히 알고 믿고 섬기며 따르라는 뜻을 주셨는데, 남아가 아니고 여아였던 것이다. 하늘의 은밀한 경륜의 뜻을 몰랐다.

내게는 이 옛날 얘기가 하나의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다. 재림주님이 되실 남아가 아니지만 여아를 분만하신 대모님께서는 애지중지 사랑으로 양육하심에 폭 빠지셨다. 하루는 젖을 먹이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순애야, 그 아이가 사랑스러우냐? 그 아이는 네 아이가 아니다. 너는 그 아기 유모다. 하늘의 아기다. 잘 길러라” 이러한 놀라운 소리였단다. 점점 풀 수 없는 사연이었다.

참아버님과 만나심

당시 환경은 공산주의 화정이 점점 극악해지고 종교 탄압이 극심해지는 때였는데, 6·25전쟁이 발발해서 세상은 온통 아수라장이 됐다. 생명이 위급해지니 신도들도 각자 삶의 길을 찾아 피난을 가면서 뿔뿔이 흩어졌다. 이때 참어머님께서는 6세였고, 대모님은 홀로 어린 따님을 업고 남한으로 피난길을 떠나셨다. 그 어려운 피난길에서도 하늘이 직접 인도하시어 남한 서울에 무사 도착하셨다.

이때 대모님 친남동생 분께서 국군 장교로 계셨다. 정착처는 이 남동생의 집이었다.

독생녀를 보내주신다는 하늘의 은밀한 계시가 있었지만 남아가 아니라 여아였기 때문에 이복에서 내려주신 하늘의 계시는 완전히 잊으신 듯하셨다. 그 가운데 대모님께서는 지성을 다하시며 참어머님을 양육하시면서도 재림주님을 만나야겠다는 하나의 소망뿐이었다. 그렇게 지내면서 이복 신앙의 자매에게서 재림주님께서 청파동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따님을 데리고 “애, 재림주님께 경배드리러 가자” 하며 어렵게 청파동 교회를 찾으셨다. 그때 참어머님께서는 8세였다.

참아버님 어전에 가서 모녀분이 경배를 드리고 왔으니까, 참아버님 말씀이 “홍순애 딸인가?” “예, 그러합니다” 즉시 참아버님께서 혼자 하시는 말씀이 “대한민국에 하늘의 참딸이 태어났도다” 연이어 세 번 꼭 같은 말씀을 하셨다. 아마 귀하게 아름다운 어린 소녀이시니 칭찬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지, 참어머님이 되시리라고까지는 예상 못 하시고 흘려버리신 듯하다.

무지한 사람을 대하시어 하나님께서는 섭리의 뜻을 두셨으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독생녀를 보내셨지만 깨닫지 못하는 생모나 주위 사람들 모두 참아버님의 그 말씀 “대한민국에 하늘의 참딸이 태어났도다” 이 역사적인 예고인지 깨닫지 못하면서 시간이 흘렀다. 대모님께서는 따님과 함께 참아버님께 경배를 올리고 나서 ‘나의 소망을 이루었으니 오늘부터 재림주님 모심에 몸바치겠다’ 결심을 하고 따님을 삼촌댁에 맡기시고 교회에서 지내셨다. 대모님은 피난길에서의 고생이 쌓이고 쌓여서 몸이 마음을 따르지 못해 병이 나서서, 참아버님께서 조용한 곳에 가서 쉬라고 하실 때 뜻에 따라 오

202 Ⅱ 참사랑의 승리자 참어머님

집사님께서 노량진 셋집에서 가까운 골방에 세를 내어 오시게 했다. 이렇게 하여 세 집이 한 울타리에서 살게 되었다.

하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주님이 독생자로 탄생하신 역사가 이 시절까지 믿으면서 독생녀를 탄생시키신 하늘의 역사는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통탄해하심이 어떠하셨을까! 독생녀를 보내니 믿고 따르고 섬기면 죽지 않고 영생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못했으니 인간의 무지함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 했다. 독생녀가 성장하여 재림주님의 신부가 되시면 재림주님의 분신체로 재림주님이신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미련한 생각으로 하늘을 거역했으나, 하늘이 은밀한 가운데 경륜하시고 섭리하셔서 인류역사를 복귀역사로 시대적으로 일궈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은 참 부모님 시대에 살게 된 은사이다.

하나님의 뜻과 성혼식

이제 중대한 사연이 시작된다. 나는 참어머님을 16세 때 처음 보았다. 대모님께서 노량진에서 쉬며 지내시고 참어머님께서 서울 시내 외삼촌댁에서 학교에 다니고 계시던 때였다. 주말이면 가방을 들고 여학생 교복 차림으로 대모님을 찾아오셨고, 주말이 지나면 시내로 돌아가시곤 하셨다.

당시 16세 소녀이셨지만 놀랍게 체격도 반듯하게 성장하셨다. 아름다운 향기를 가진 꽃다운 미모를 지니셨고, 그 외 지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성숙한 자태였다. 약간 쌀쌀하고 깔끔한 성격이라고 느껴졌다. 이때까지도 이복에서 내리신 하늘의 계시나, 또 앞에 쓴

제2부 참사랑의 승리자 / 만남과 사랑의 증언 Ⅱ 203

대로 청파동 교회를 찾아와서 경배드리고 아버지께서 세 번씩이나 '대한민국에 하늘의 참딸이 났도다' 하신 것을 까마득하게 잊었다. "들어라!" 하늘은 외치신다. "독생녀를 보내주었던만 너희가 어찌 그리 깨닫지 못하느냐?" 하늘은 애통해하시면서 또다시 기다리신다.

오 집사님은 이때 재림주님의 신부가 될 규수를 찾는 데 주야 노심초사였다. 재림주님께 맞는 연령으로 내적 외적으로 미적인 면을 갖춘 준비된 사람을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다. 그럴 수밖에! 이미 하늘이 예정하시고 귀히 간직하여 세상 사람 눈을 가리시고 깨끗한 독생녀를 기르시며 때를 기다리시는데 인간은 모르고 지나친다. 나 역시 독생녀를 뵈고도 깨닫지 못했다.

어린양 잔치가 있기 몇 년 전 일이다. 어느 주일에배 시 참아버님께서 하나님의 원한에 대해 옥체가 쓰러지실 지경에까지 아르시면서 통탄해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6천년 원한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고 물으셨다. 옥체는 땀으로 뒤범벅이 되셨다.

6천년간 하나님은 17세쯤 된 참딸을 잃어버리시고 원한에 사무치셨는데 그 원한을 못 푸셨다. 그 원한은 17세 되는 하늘의 참딸을 못 찾았기 때문이다. 복받치는 심정을 토로하시는데,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참아버님 옥체에 오신 것 같았다. 17세 되는 깨끗하고 지혜롭고 미모와 더불어 내면 외면의 미덕을 갖춘 처녀! 님의 뜻을 말씀하십시오. 이때 이 말씀에 나는 '17세의 참딸이라면 영적으로, 영육 아울러?' 나의 생각과 해석은 복잡했다. 그러면서 17세 되는 지금의 참어머님이신 그 여학생은 생각지 못했으니!

오 집사님의 신앙수기 증언 제3호를 보면 식구님들 독자 여러분께서는 오 집사님이 재림주님 신부 되실 처녀를 찾으신 그 열정을

204 || 참사랑의 승리자 참어머님

알 것이다. 생각은 오직 신부감 찾는 것이었다. 어느 한날 노인이 오 집사님과 일을 하다가 “오 집사, 선생님 상대는 17세야 된대” 이 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후일 나보고 그때의 상황을 말씀하셨다. “아, 내가 미처 몰랐군. 순애의 딸 학자가 있지” 종일 참어머님 존함이 입에서 터져 나올 뻔했단다.

그 날 밤 12시경 노량진 집에 돌아와서 즉시 대모님 방을 찾아갔다. “순애야, 자니?” “안 잔다. 들어오너라” (이때 대모님과 오 집사님은 너 나 하며 지내시는 때였다.) “네 딸이 몇 살이지?” “너는 아닌 밤중에 와서 내 딸 나이는 왜 묻니?” “필요해서야” “17세다” “생일은?” “음력 1월 6일 43년 생이다”

오 집사는 여기에서 뜻을 이루었다. 내심 감격과 감사와 기쁨에 넘쳤다고 하였다. 다음날 부터 참어머님, 참신부로 하늘의 어인을 받으려고 분주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복에서 독생녀를 보내시고 때가 이르면 어느 누구에게 뜻을 이루시겠다고 예정하신 것이 이 땅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1가 71-3 작은 통일교회에서 이루어졌다. 하늘 뜻 성취의 잔치 준비는 한 단계씩 올라가서 마침내 1960년 음 3월 16일 그 날은 천주가 승리의 환희로써 들썩들썩 광광 춤을 춘다. 만민이 경배와 찬양을 올리여 할 이 날 이 시간이었건만 인류는 깨지 못하는 무지의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인류역사 후로 천지가 뒤집어지는 이 날이 예고하신 하나님 뜻 말씀인 어린양 잔치다. 17세 아직 연소하신 마치 한 송이 연꽃 같은 분이 참어머님 보좌로 입문하셨다. 우주가 축하와 찬양을 해야 할 이 날이었건만, 조출한 청파동 통일교회가 어린양의 존재를 선포하는 대경사의 장소가 되었다. 이 시간부터 이복에서 하늘이 내리신 계시가 실지실상의 영광의 자리에 정좌하심으로써 실현되었

다. 이 얼마나 영광스런 날이었던가! 감히 나 부족한 사람도 시대적 혜택권에서 살게 되어 이 엄숙한 거룩한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

승리의 여왕 되신 참어머님

영광의 자리는 귀중한 사명이 따르는 것이 천법이다. 이에 참어머님이라 천도에 예외는 없었다. 나는 그때에 여러 상황을 나름대로 감지하면서 지냈다. 재림주님 참아버님의 주변에 대해서도 느끼는 바가 많았다. 인간이란 전부 타락성 근성인 시기 질투 교만 오만 자만으로 내적 인간성은 야수와 같다. 야수보다 무서운 것이 인간이라고 나 혼자 느끼며 내심으로 갖고 나온 생각이었다.

외적으로 볼 때 참어머님 위치에 오르신 신부께서는 어렵고 두려운 노정의 출발이시다. 위의 말씀대로 타락성 근성에 몽친 인간들을 어머님께서 소화(燒火)하시면서 천주의 참어머님 자리 고지에 오르셔야 하는 입장이시다. 외부로 보이고 느끼는 안락한 보좌가 아니라 주변에 가까이 대결해오는 무리들을 자연굴복시켜야 하시는 고난의 십자가의 노정이시다. 앉으신 방석은 가시방석, 주변은 암흑의 살풍경에 어느 누구의 따뜻한 위로도 전무한 입장에 서셨다. 고독에 외로우신 어머님에게는 심정세계의 혈투라고 그때 나는 느꼈다. 참으로 무서운 환경이었다.

참어머님께서 1960년대에 지내오신 노정은 어떠하였는가? 인고 하시며 주변을 자연히 참사랑의 심정으로 전환하시며 오늘의 육순 경축연 자리에 앉으시기까지의 일들은 범인은 상상치 못한다. 나는 느꼈다. 1970년대부터 참어머님의 위상은 천주에 빛나시고, 우주

206 Ⅱ 참사랑의 승리자 참어머님

의 참어머님이 되셨다. 하늘땅이 믿어 받들어 모시는 완성 정착하시리라 생각했다. 참으로 어머니는 완성 완전 승리로써 우주의 참어머님 보좌에 정착하셨다. 어느 누가 만들어 올린 것이 아니라 참어머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쓰러지지 않으시고 당당한 거보로써 승리하시어 오늘 영광의 자리를 성취하셨다.

일심 일체 일념, 하나님 주류 정신사상의 본체이신 참아버님의 내조는 하나님께서 “참 내 딸이로다!” 환희의 어안이 어둠을 밝힌다. 참어머님께서는 위대하신 위인 뒤에 위대한 아내가 있다는 격언의 실존체가 되시었다. 인고에 승리한 여왕이심을 아니 느낄 수 없다. 완전히 일심 일체 일념, 하나님 근본주류 사상의 완성 옥체 참부모님이신 참어머님께 또 다시 감사 드린다.

참아버님과 참어머님과 완전 일심 일체 일념의 실제로서 만천하에 우주가 요동하는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해 올리셨고, 천지부모 통일 안착 생활권대회, 천일국 평화통일평정시대 선포 등 인간의 두뇌로써는 상상하지 못할, 타락 세상에 전인류의 새 삶의 방도를 선포하심에 참어머님께서는 위대하신 내조의 여신상(女神像)이 되셨다.

참어머님께서 오늘날 육순의 경사 날을 맞이하시기까지는 평탄하고 안일한 노정이 아니었다. 고난과 외로움, 비통함에 형언 불가능의 십자가 가시밭길에서 홀로 승리하신 여왕이시다. 우리 여성들이여! 참어머님 육순의 경축날이 오늘로써 끝남이 아니니, 뜻을 헤아리는 현명한 여성세계를 건설하자. 참어머님 탄생의 하늘의 은밀한 뜻을 다시 마음에 새겨, 참어머님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걸어오시며 승리의 여왕이 되신 역사를 되새겨 마음세계를 정확하는 우리 여성들이 되도록 각성합시다.

제2부 참사랑의 승리자 / 만남과 사랑의 중언 || 207

끝으로 참어머님 옥체 만수무강하시오며, 특히 우주의 참어머님
의 자애로써 무지한 여성계를 품어주옵소서. 세세토록 참어머님,
우주의 참어머님 영광과 존귀를 누리시옵소서. •